



## 제15차 세계가금학 대회 및 양계 박람회에 다녀와서

사진설명 :

<제15차 세계가금학회가 열린 미국 루이지아나주 뉴올리언즈에 자리잡고 있는 대규모 회의장소>

오        봉        국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장  
서울농대교수. 농박>

금번 제15차 세계가금학대회 및 박람회(X)V World,s Poultry Congress & Exposition는 미대륙 중부 남단에 위치하는 역사깊은 항구 도시인 루이지아나주 뉴올리언즈(New Orleans)시에서 8월 12日에서 8월 16日까지 5일간 개최되었다.

세계가금학회는 매 4년마다 개최되며 회원 국가중에서 유치하는데 따라서 열리게 되는데 제13차 대회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열렸고 제14차 대회는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다. 세계가금학대회는 학회의 창립목적과 같이 성격이 비정치 비영리 단체로서 가금학 또는 가금산업에 종사하거나 관계있는 기관에 종사하는 인사로서 구성되며 모든 국가에서 개발된 새로운 지식과 이론 그리고 기술을 상호 교환하여 각 국가의 양계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

를 신속히 교환하여 가금산업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대회가 비록 미국에서 개최되었으나 참가국은 미국을 비롯하여 구라파의 동, 서진영이 모두 참석하였고 공산국가 대표들도 다수 참석하였다.

우리나라는 1970년에 정식 회원국가로 승인이 되었으며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가 설립되어 현재 48명의 회원과 2명의 회원국가의 대표이사로서 국제기구에 참가하고 있다. 북한도 정식 회원국가로 가입되어 있으며 세계가금학회 북한지부도 설치되어 있는데 회원은 20명이며 1970년에도 국제이사는 공석중에 있다. 세계가금학회는 현재 34개국에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국은 41개국으로 되어 있고 회원수는 5,326명이다.

제15차 세계가금학대회의 스로건은 「가금산

업을 통한 인류의 식량해결을 위하여」라는 표어 아래 40여개국에서 약 1,500명이 참가하였으며 대회의 중요 행사로는 5일간에 걸친 각 분야의 학술 논문발표와 병행하여 각국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계기구 닭똥종 약품등의 전시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논제에 대한 특별「심포지움」그리고 앞날의 양계산업의 주인공이 될 젊은 학도들의 특별행사 등이었다.

금번 미국에서 열린 제15차 가금학대회에 필자가 한국대표 이사결 논문발표자로 참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대회참가에 따르는 제경비는 사료협회 유윤수회장의 적극적인 후원과 미국 쿡크회사(COOK IND. CO.)의 한국총대리점인 삼가산업주식회사 강사장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경비일체를 부담하여 주신데 대하여 지면을 통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 1. 학술논문발표와 심포지움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모두 277건으로서 발표자는 493명이었다. 학술논문의 발표는 영어 불란서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발표토록 되어 있으며 4개국어로 동시에 통역이 되어 나오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발표논문도 4개국어로 동시에 게재되었으며 논문발표는 다음과 같이 6개분과로 나누어 발표되었다.

- 제 1분과 : 유전 육종
- 제 2분과 : 영양 사료
- 제 3분과 : 경영 관리
- 제 4분과 : 생산물 판매 처리
- 제 5분과 : 병리 질병
- 제 6분과 : 번식 생리

### 제 1분과 : 유전 육종분야

유전 육종분과에서 발표된 논문수는 32건의 논문으로서 주로 발표된 내용은 ; (1) 육계생산(Broiler)을 위한 성장율, 사료효율 개선에 관한 연구 (2) 산란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3)

질병 특히 백혈병과 마래병 저항성계통 육종을 위한 연구 (4) 유전자와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등이었으며 「심포지움」의 논제로는 새로운 연구분야인 「세포유전학」에 대한 연재 발표가 있었다. 이 중 특기할만한 것은 산란능력 향상을 위한 육종을 어떻게 하면 현재의 수준을 돌파하여 보다 우수한 산란능력을 가지는 닭으로 개량할 것이냐에 대한 시도들이었다.

### 제 2분과 : 영양 사료분야

발표건수는 64편의 논문으로 제일 많았으며 논문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비타민과 항생물질에 관한 연구 (2) 무기물 및 미량물질에 관한 연구 (3) 에너지와 지방에 관한 연구 (4) 단백질과 에너지에 관한 연구 (5) 제한급사에 관한 연구 등이었으며 심포지움의 연재로는 닭 폐기물 이용 처리에 관한 것과 카로티노이드(Carotenoids)에 관한 것이었다. 특기할만한 것은 미국과 같이 사료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도 양계산업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용에 관한 연구가 많이 주어지고 있으며 닭똥과 생산물폐기물의 사료화 문제, 등이 연구 개발되고 있었다. 그리고 계란과 닭고기의 색소침착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었다.

### 제 3분과 : 경영 관리분야

발표건수는 55편의 논문발표가 있었으며 발표내용은 : (1) 생산과 판매에 관한 연구 (2) 부화경영과 부로일러 생산에 관한 연구 (3) 계사구조 및 광선관리에 관한 연구 (4) 닭 사회행동 모형과 장소에 관한 연구 등이었으며 심포지움의 논제는 가금생산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것이었다. 특기할만한 내용으로는 경제면에서는 생산물의 원가계산방법과 관리에 있어서 닭의 행동과학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그리고 종란생산에서 부화에 이르기까지의 위생적인 처리에 관한 문제들이었다.

### 제 4분과 : 생산물의 처리 이용분야

논문의 발표건수는 약 46편으로서 그 내용은 : (1) 알의 구성과 난질에 관한 연구 (2) 고기의 구성과 육질에 관한 연구 (3) 알 및 고기의 처리 가공에 관한 연구 등이었으며 심포

지음 내용은 닭고기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털 뽑기와 도체의 냉각이 육질에 보이는 영양에 관한 문제였다. 이 분야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인간식품으로서 어떻게 하면 기호에 맞도록 하여 소비를 증대시키느냐 하는 문제와 알과 고기의 질을 인간식품으로 어떻게 신선하게 보존하느냐 등의 연구문제들이었다.

### 제 5 분과 : 병리 및 질병분야

논문 발표 전수는 약 45편으로서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1) 폭식됨에 관한 예방치료에 관한 연구 (2) 질병 진단에 관한 연구 (3) 뉴캐슬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연구 (4) 무균계 생산에 관한 연구 (5) 마이코 플라즈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연구 (마렉병에 관한 연구) 등이었으며 심포지움의 논제는 뉴캐슬병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과 일본의 병리학자들로만 구성된 별도회합에서는 마이코프라즈마병에 관한 미일간의 토의가 있었다. 특기할만한 것으로는 무균계 생산을 위한 연구와 뉴캐슬병 및 마렉병의 예방 대책과 마이코프라즈마병의 예방 및 병리학적 연구였다.

### 제 6 분과 : 번식 및 생리분야

이 분야의 발표논문은 35편으로서 (1) 환경과 번식생리에 관한 연구 (2) 대사 및 내분비에 관한 연구 (3) 일반생리에 관한 연구 (4) 번식생리 및 인공수정에 관한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심포지움의 논제로서는 환경과 번식생리에 관한 문제였다. 이 분야에서 특별히 강조된 것은 닭사육의 환경과 이에 따르는 생산에 관계되는 생리현상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학술논문 발표가 이와같이 6분과로 분리하여 매일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러한 대회에 한국을 대표하여 참석한다면 가능하면 각분과별도 대표자를 선정하여 파견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요즘 연구되고 있는 방향 자료 정보 등을 충실히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외에 특별한 행사로서 새로운 양계경영이란 제목으로 양계경영의 새로

운 관리법에 관한 체험담등의 발표가 있었는데 주로 기계화문제와 환경개선에 관한 것들이었다.

## 2. 산업전시회

산업전시회는 각국에서 새로 개발된 가금산업 분야의 기구 기계류를 비롯하여 새로 육종 개발된 닭의 품종 약품 기타 잡지등을 전시 선전하고 있었다. 전시 장소는 대회 장소인 리버게이트(The Rivergate)라는 건물이었으며 우리나라로 치면 상공회의소나 무역회관과 같은 커다란 건물에 1층은 장충체육관과 같은 홀로 되어있는 장소였다. 2층 3층은 주로 학술발표 회의실로 사용하며 1층은 커다란 홀로서 전시장으로 쓰여지도록 마련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모은 전시품을 진열하고 선전하고 있었다. 미국 상품이 주였으며 비교적 많은 상품이 전시된 나라가 영국, 캐나다, 화란, 불란서, 이태리 등으로 전시품을 제출한 회사는 184개 회사로 전시한 국가는 20개국에 가깝다.

기계 기구류의 전시로서는 크게 전시 선전되고 있는 품목이 가금생산물 최저 가공기구로서 계란의 세척 등급 기계로부터 할란 가공에 이르는 기계류와 닭, 칠면조 등의 도살 처리 가공등에 관한 기계류가 많이 전시되었는데 특기할만한 것은 항문을 도려내는 특수기계가 새로 개발 전시되고 있었다.

다음은 부화 육추에 관계되는 기계 기구류로서 10여개 회사로부터 완전자동 장치가 된 입체부란기의 전시와 부화작업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선란과 입란에 있어서 바큇핌프를 이용한 계란흡착기와 입란상이 별로 필요없고 상자대신 프라스틱으로 된 난좌를 그대로 발육실에 넣도록 개량된 것이 특징이었으며 발생실에는 난좌를 발생실 난상에 그대로 넣어, 난좌위에서 병아리가 까 나오도록 구조 변경이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종란은 양계장에서 선별하여 일단 난좌에 집어넣으면 그대로 그 난좌가 병아리가 까 나올때까지 부화기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발생된 병아리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병아리 상자에 담도록 되어 감별 보관을 여기에서 하고 출하할 때 비로서 수송상자에 넣도록 플라스틱 박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흥미 있다.

육추기는 빠다리에서 케이지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가 있었으나 별로 새로운 것은 없었으며 산란 및 육성 Cage가 철사대신 플라스틱 케이지로 만들어진 것이 눈에 띄었다. 케이지용 물통의 종류가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즉 각 케이지마다 뒷면에 물통을 달게 되어 양쪽 닭이 한 물통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항상 깨끗하고 방울 방울 올라오거나 떨어지는 물을 부리로 빨아 먹도록 만든 것이 특징적이라고 생각되었다.

부리자르는 기계를 비롯하여 인공수정기구들도 몇가지 전시되었으며 조금씩 개선된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닭의 육종개발 품종전시는 세계에서 이름있는 회사들이 품종의 특성을 도표로 전시하고 일반 관람객에게 줄 선전용 책자를 준비하여 서로 앞을 다투어 선전과 고객을 유치하고 있었다. 특히 구라파지역의 종계회사 선전이 눈에 띄었으며 남미의 육종회사에서도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다.

한가지 특기할 것은 미국의 종계회사가 크고 작은것 합하여 20여개 회사가 전시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미국의 종계회사는 큰 회사로 통합될 가능성이 많으며 큰 종계회사는 다소 제약회사나 사료회사와 합작하여 계열화 기업의 하나로 흡수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 하나의 예가 미국의 H&N 종계회사가 최근에 미국의 화이자제약회사와 합작하였다는 것이다. 종계회사의 책임자의 말에 의하면 양쪽 회사가 다 같이 바라는 바로서 종계회사측은 화이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국내의 세계시장의 판매조직망을 이용하여 판매활동을 할 수 있는 잇점이 있고 들쭉는 앞으로 보다 우수한 종계를 육종개발하고 건강할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위생시설과

종계시설확장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여기에 투자할 자본을 얻을 수 있고 투자된 자본에 해당되는 판매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제약회사측은 앞으로 뉴켓슬 마렉백신등 생약제제품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판매될 가능성이 많으며 아울러 새로운 개발품목이 유망시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계란과 닭은 무균계(SPF Stock)균에서 공급받아야 하므로 무균계균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종계장을 만들자면은 H&N 종계회사와 같은 대규모의 새로운 종계장을 만들고 또한 이것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나 기존 종계장을 이용함으로써 제약회사측은 자본투자가 많이 절약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앞으로 생약제제를 많이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 업존, 펠크, 샬스버리회사 등도 종계회사와 합작하려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양수결장으로 앞으로의 종계회사는 더욱 그 규모나 판매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낙오될 가능성이 있는 적은 회사는 큰 회사에 흡수되거나 합작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제약회사의 제품들의 전시인데 비타민 종합제와 항생제품을 비롯하여 광물질 및 생물제제품의 전시가 준비하게 진열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기할만한 것은 항생제나 기타 설파제에 있어서 유독성이 생산품에 잔류하지 않고 내성이 적은 개발품에 대한 선전에 대한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외에 가금산업에 관련되는 출판물의 선전이 많았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의 월간잡지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어떤 전시장에서는 자기나라 고유의 풍습과 의상을 갖추고 눈길을 끌며 값싼 토산품을 증정하기도 하였다.

### 3. 기타행사

대회기간중 회원국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회원국 41개국에서 이사 126명이 참석하였으며 주요 안건으로서 임원개선과 다음 대회의

개최지 선정이 있었다.

임원개선에 있어서 관계에 따라 회장은 대회 주최국의 대표이사가 되게 되어 제15대 신임회장에는 미국대표인 A.W. Jasper박사가 되고 부회장 5명은 투표결과 영국, 스위스, 호주, 브라질, 소련의 대표등이 당선이 되었고 수석 부회장에는 영국의 Shrimpton박사가 선출되었다. 사무총장에는 현 사무총장인 콜박서(R. Coles, 탈타대표), 간사에는 현간사인 R. G. Jaap(미국대표)가 재선되었다.

제16차(1978년)대회 개최지 선정에 있어서는 이스라엘과 브라질 양국가에서 유치 신청을 하였으며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예를들면 이번 미국 뉴오리언스에서는 호화스런 호텔과 회관에서 개최되어 회원들에 대하여 많은 경비부담을 가져왔는데 자기네 나라에서 할 때에는 시설이 좋은 값이 싼 대학 기숙사를 개방하여 적은 비용으로 숙식을 제공할 용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의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약속들을 하였다.

일부 아랍국가에서는 만일 이스라엘에서 제16차 회의가 개최될 경우에는 자기들은 물론 참석을 하지 않겠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반대연설까지 하였으나 이스라엘국가 대표이사는 비록 전쟁중이라 할지라도 적성국 대표가 입국을 희망할 경우 책임지고 입국허가와 생명을 보호하여 주겠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비록 현재는 전시와 같은 여건하에 있으나 4년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무한 상관이 있느냐고 반박하여 로베 장내분 위기가 험악하였으나 미국대표의 화해로 토론은 중지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한 결과 브라질로 결정이 되어 제16차 세계가금학 대회는 브라질의 센트바울 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 가금산업에 관계있는 연구소와 종계장 방문기행은 다음 기회로 미루며 끝으로 이번 제15차 세계가금학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후원회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원고를 맺는 바이다.

# 김수의과 약품상사

가축 약품 전문 취급처

- ◎에그믹스ST      ◎가금졸
- ◎피    믹    스      ◎료세논
- ◎카    우    믹    스      ◎보나슬

경북 대구시 중구 봉산동 180-8  
전화 대구 5-2100, 5-3100

